

##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사용 양상과 언어 발달\*

임유종\*\* · 이필영\*\*\*  
(한양대학교)

### <Abstract>

Im, Yoo-Jong & Lee, Phil-Young. 2004. On the use of the Adverbs Co-occurred with the Negative Expressions and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Competence. *Korean Semantics, 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competence through the use of the adverbs co-occurred with the negative expressions. It is necessary for some adverbs to co-occur with the negative expression in Korean. Of the 34 adverbs in spoken language corpus, only 16 adverbs are founded(ex 전혀, 절대로, 별로, 차마 etc). Adverbs such as '별로, 절대로' are appeared in early ages and the most frequently. Adverb such as '차마' is appeared very later. Otherwise these adverbs have different combination constraints with the negative expressions. We will analyze the combination constraints of the adverb and the negative expression concretely, based on the spoken language corpus.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be applied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description of Korean dictionary, and NLP(natural language process) etc.

핵심어: 부사, 호응 관계, 언어발달, 부정표현, 구어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4-AM1055)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유치원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결합 제약이나 호응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각 부사의 첫 출현 시기와 그 결합 제약은 물론이고, 이것이 단계별 자료에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한국인이 호응 관계 습득에 관한 특성을 분석해 내는데에 있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사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

- (1) 결단코, 결코, 과연, 구태여, 그다지, 그리, 당최, 딱히, 도대체, 도무지, 도시(都是), 도저히, 도통, 미처, 바이, 별달리, 별로, 별반, 별양(別樣), 비단, 영, 여간, 이루, 이만저만, 일절, 전연, 전혀, 절대(로), 좀처럼, 좀체, 지지리, 차마, 체, 통

위의 목록은 선행 연구와 사전 등을 참조하여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들을 추린 것이다.<sup>2)</sup>

이 연구의 자료는 유치원 아동에서부터 대학생까지 각 단계별로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을 녹음하여 전사한 것이다.<sup>3)</sup> 녹음은 각 파일 당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사는 전체 녹음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한

---

1) 이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심사자 세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2) 이러한 부사류는 ‘부정극성 부사, 부정소 호응 부사’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부정극어’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분야에서 다루는가에 따라 ‘부정극어에 의한 연어’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부정극어의 전체 유형을 감안하면 ‘부정극성 부사’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부사 영역의 세부 유형으로는 ‘부정소 호응부사’라는 명칭도 가능하며, 연어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극어에 의한 연어 유형’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영역에 상관없이 부사 중에서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구절 형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이 연구의 자료는 한양대학교의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단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구축한 구어 자료 중 일부의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서 유아의 경우는 다른 단계에 비하여 양이 적다. 같은 나이에 속하는 또래끼리의 대화 자료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은 유아 자료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어휘인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것이 아니라 각 녹음 내용에 대해 2,000어절 규모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곧, 녹음 시작 부분부터 전사를 시작하여 2,000어절 정도의 대화 내용이 전사되면 그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대화자의 발화가 양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한 파일 당 대화자는 2명이다. 실제 자료 분석은 주로 전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생	합계
	4세	5세	6세	7세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파일 수	12	12	12	12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698개	
대화 참여자	24	24	24	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396 명	

위와 같은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부사 어휘들이 실제로 몇 개 어휘나 나타나는지를 검색하고 실제 자료에 나타난 어휘들이 단계별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나아가 그것과 호응하는 부정 표현들의 양상은 어떤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어떤 어휘가 나타나는지를 검색하고, 해당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발화를 추출하여 어휘별, 부정 표현별로 정리,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문법 지식의 습득 및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문법 지식 중에서 비교적 늦게 습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응 관계의 습득 양상을 살피기 위함이다.<sup>4)</sup> 유아 후기나 초등학교

4)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습득 양상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일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부사 또는 부정극어와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다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이를 언어의 일종으로 다루기도 한다. 김경훈(1977, 1996), 박선자(1983, 1996), 손남익(1995), 임유중(1999) 등은 부사 관련 논의로 부사의 호응 현상 중에 한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환목(1977), Chung, Dae-ho(1997), 시정곤(1997, 1998), 김영희(1998), 남승호(1998), 이재영·엄홍준(2004) 등에서는 부정극어 현상과 관련하여 부정극성을 보이는 일부 어휘나 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그 허가 조건 등을 밝히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김진해(2000), 임홍빈(2002) 등에서는 언어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부사와 부정 표현의 어울림 관계를 ‘형태, 통사적 언어(부정극어에 의한 언어)’, 또는 문법적 언어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시기가 되면 모국어가 거의 습득된 양상을 보이므로 그 이후의 언어 능력 발달 양상에 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 연구는 초등학교 이후 시기에도 미습득된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해 가고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초등학교 이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언어 습득 또는 언어 발달에 관한 논의가 전 연령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논의가 이러한 연구 범위의 확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sup>5)</sup>

## 2.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출현 양상과 습득 순서

부정 표현과 호응 하는 부사 중에서 구어 자료에 나타난 어휘는 16개이다. 서론에서 제시했던 전체 34개의 어휘를 일일이 검색해 본 결과 약 50% 정도의 어휘가 실제 구어 자료에서 발견이 된다. 구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어휘들은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어적인 요소이거나 아니면 미습득된 어휘로 볼 수 있다. 구어 자료에 나타난 부사 어휘 목록과 그 사용 빈도를 출현 시기별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분	3세	4세	5세	6세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	총빈도
별로		1		4	17	23	39	61	63	89	115	76	105	94	99	52	118	955
절대(로)			1	2	11	8	7	5	17	17	9	24	12	12	8	18	27	174
도대체					11	8	2	7	3	3	10	13	10	4	4	7	8	90
전혀					1					2	3	2	6	9	10	7	16	56
영					1								2			1	3	7
통					1								2					3
미처					1								1					2
도통					1													1
도저히						1	1	2	1		3	2	4	5	2	4	11	36

5) 한 심사자가 단순한 호응 관계에 대한 습득에 관한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다른 호응 관계에 대한 논의도 준비 중이다. 종전에 호응 관계의 습득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채						1											2	3
일절						1											1	2
그다지									1	6	2	1	3	2	3	2	3	20
딱히										2	1		1					4
그리										2				1	1			4
도무지											1	1						2
차마														3	2	8		13

전체 빈도순으로 보면 ‘별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빈도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로)’가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후 ‘도대체, 전혀, 도저히, 그다지, 차마’ 등이 빈도 10 이상의 것들로 비교적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이 빈번한 것들이다.

한편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첫 출현 시기나 단계별 변화 양상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 위의 표를 보면 우선 초등학교 이전 시기에 출현하는 어휘는 ‘별로, 절대로’이다. 이 어휘들은 전체 빈도순으로도 1, 2위를 차지했던 것들로서, 초등학교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처음 출현한 이후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류 중에서 가장 먼저 습득되는 어휘들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부사들은 그 첫 출현 시점이 습득 시점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어휘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기능부담량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출현하기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시기에 처음 출현하는 어휘는 ‘도대체, 전혀, 영, 통, 미처, 도통, 도저히, 채, 일절’이다. 그런데 ‘도대체, 도저히’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불규칙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도저히’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전 시기에 출현했던 어휘들에 비해 첫 출현 시기는 다소 느리지만 일단 출현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안정된 빈도수를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처음 출현한 이후 한참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출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up>6)</sup>

6) 이러한 불규칙성은 자연스러운 대화 녹음 내용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기능부담량이 높지 않은 어휘들은 대화에서 가끔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위와 같은 현상을 두고 어떤 어휘가 먼저 습득되는가 하는 점을 판단하는 데에는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첫 출현 시점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일단 첫 출현이 빠른 어휘가 그렇지 않은 어휘보다 먼저 습득되는 어휘라는 것이다. 어떤 어휘가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 매번 등장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처음 출현한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일단 출현을 하였기 때문에 습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가령 ‘영, 통, 미처’ 등이 ‘도저히, 그다지’ 등의 어휘보다 일찍 습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첫 출현 양상이 습득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습득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어떤 어휘가 처음 출현한 이후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늦은 단계에서 출현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출현을 한다면 그 습득 완료시기는 처음 나타난 시점이 아니라 두 번째로 출현한 시기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습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앞서와는 달리 ‘도저히, 그다지’가 ‘영, 통, 미처’보다 더 빨리 습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저히, 그다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출현 시점이 ‘영, 통, 미처’의 경우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는 습득의 개념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두 가지 가능성은 늘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가령 ‘전혀’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회 출현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 다시 출현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출현한 시점을 습득 시점으로 볼 개연

---

사용 빈도가 일관된 방향성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7) 언어 습득의 과정을 보면 특정 시점에 갑자기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서히 습득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습득의 출발점을 습득이라고 할 것인지 완전히 습득이 이루어진 완료 시점을 습득이라고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종전의 논의들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히 언급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개념 정리와 관련해서는 습득이 시작되거나 완료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후일을 기약해 본다.

성이 높다고 본다. 이것이 특정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기능부담량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습득이 덜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령 ‘영’이나 ‘통’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빈도도 낮을 뿐 아니라 불규칙적인 출현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기능부담량이 적은 어휘이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첫 출현 시기를 습득 시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어휘별로 사안이 달라서 어떤 경우는 전자의 관점으로, 또 다른 경우는 후자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명확히 분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정한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발화에 나타난 현상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자의 관점, 곧 첫 출현 시기를 중시하는 입장에 서고자 한다. 어휘의 기능부담량이라는 것이 다소 막연한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자연 발화에서 기능부담량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가 잘 아는 표현을 써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인간의 특성상 일단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습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sup>8)</sup>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나타나는 어휘는 ‘그다지’가 유일하다. 빈도가 1회에 불과하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나타나는데, 출현한 이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늦으면 중학생 정도가 되어야 습득이 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중학생 시기에 처음으로 출현하는 어휘는 ‘딱히, 그리, 도무지’의 3 어휘이다. 3 어휘 모두 처음 출현한 이후의 출현 양상이 다소 불규

8) 선행 연구들을 보면 설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아동의 발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논의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출현 양상을 중시하여 습득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조명환 1982, 이인섭 1986, 이승복 1997, 이정민 1997, 조숙환 1997). 본 연구도 이런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어휘는 ‘차마’가 유일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나타나므로, 구어 자료에 나타난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류 중에서는 가장 늦게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습득이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의미나 용법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가령 ‘차마’의 경우 사전적인 의미는 ‘안타까워서 어찌 감히’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그 의미 기술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상당히 복잡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 용법도 상당히 제약이 심한 어휘이다. 가령 다음의 예를 보자.

- (1) 가. 전혀 말하지 않았다.  
나. 전혀 말하지 못했다.  
다. 전혀 아프지 않다.  
르. 전혀 모른다.  
미. 전혀 먹을 수 없다.
- (2) 가. \*차마 말하지 않았다.  
나. 차마 말하지 못했다.  
다. \*차마 아프지 않다.  
르. \*차마 모른다.  
미. 차마 먹을 수 없다.

위에서 보면 ‘전혀, 차마’는 모두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것들인데, 구체적인 호응 형태나 표현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각 가은 행동동사에 ‘안’이 포함된 일반 부정의 경우이고, 나은 ‘못’이 사용된 능력부정의 경우이며, 다은 용언 중에서 형용사의 부정 표현이 사용된 예이다. 르은 부정 어휘, 미은 ‘-ㄹ 수 없다’와 같은 구절 형태의 부정 표현이 사용된 경우이다.<sup>9)</sup> 그런데 ‘전혀’는 모든 부정 표현들과 호응하고 있는데 반해 ‘차마’는 여러 부정 표현 유형과 결합할

---

9) 물론 결합하는 부정 표현의 유형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여기서는 어휘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몇 유형만 예시하는 데 그친다.



수 없는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법의 복잡함이 습득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논의한 습득 어휘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 이전 단계: 별로, 절대(로), 아예
-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 도대체, 전혀, 영, 통, 미처, 도통, 도저히, 채, 일절
-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 그다지
- 중학생 단계: 딱히, 그리, 도무지
- 고등학생 단계: 차마

지금까지 분석된 목록과 빈도 정보는 각 단계별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하나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개발 등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0)</sup> 또한 목록과 빈도 정보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사전 기술, 자연언어 처리(NLP) 등의 국어 정보화 분야에서도 요긴한 정보라 할 것이다.

### 3. 부정 표현의 호응 양상과 단계별 변화

#### 3.1. 부사와 호응하는 부정 표현

부사와 호응할 수 있는 부정 표현의 유형을 예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가. 전혀 안 먹는다  
    나. 전혀 먹지 않는다.
- (2) 가. 차마 못 먹는다.  
    나. 차마 먹지 못하겠다.

---

10) 한 심사자는 이들 목록이 습득의 발달 경향을 대략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화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계량적인 연구가 지닌 한계로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절대로 가지 말아라.
- (4) ㄱ. 별로 없다.  
    ㄴ. 별로 얘기할 것이 없다.
- (5) ㄱ. 보니까 전혀 아니다.  
    ㄴ. 전혀 효자가 아니다.
- (6) ㄱ. 전혀 모른다.  
    ㄴ. 전혀 답을 모른다.
- (7) 도대체 네가 학생이라고 할 수 있냐?
- (8) 영 부정확하다.

(1)–(3)은 ‘안, 못, 말다’와 같은 부정 요소에 일반적인 부정 표현들이다. (1ㄱ)은 ‘안’ 부정 중에서 단형부정, (1ㄴ)은 장형부정, (2ㄱ)은 ‘못’ 부정 중에서 단형부정, (2ㄴ)은 장형부정의 경우이다. (3)은 ‘말다’에 의한 부정의 예이다.<sup>11)</sup> (4)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어휘 ‘없다’와 호응하는 경우로서 ㄱ은 부사가 ‘없다’ 바로 앞에 선행하는 경우이고 ㄴ은 부사와 ‘없다’ 사이에 다른 성분이 삽입된 경우로 원거리 호응 양상을 보이는 예이다. (5)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아니다’와 호응하는 예로서 ㄱ은 부사가 ‘아니다’의 바로 앞에 선행하는 경우이며, ㄴ은 원거리 호응의 예이다. (6)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어휘 ‘모르다’와 호응하는 경우이다. (7)은 수사의문문에 부사가 나타나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8)은 한자어 부정법인 ‘비, 불, 무’와 같은 접사가 결합된 어휘와 호응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부정 표현의 유형은 위에 제시된 것들이 전부이다. 물론 이론상으로 ‘나는 개가 영 싫어’와 같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으나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부정 표현의 유형은 위의

11) 단형부정과 장형부정과 호응 양상은 일반 언어학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언어습득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인섭(1986)에 의하면 단형부정이 먼저 습득되고 장형부정은 나중에 습득된다고 한다. 이런 면을 감안하여 본 논의에서는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을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부사와 부정표현이 인접해 있는 경우(ex:전혀 아니다)와 떨어져 있는 경우(ex:전혀 사실이 아니다)도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제시된 것이 전부이다.

한편, 구어 자료에서는 위와 같은 부정 표현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결합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9) 직접 보니까 별로다.

(10) ㄱ. 전혀 다르다.

ㄴ. 전혀 모양이 다르다.

(9)는 부사 자체가 지정사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호응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출현 분포를 따질 때에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는 형용사 ‘다르다’와 호응하는 경우인데, 이는 부정극어(‘아무도’ 따위)와는 결합하기 어려운 어휘이다. ‘다르다’는 ‘같다’와 대립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앞의 목록과는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분석 과정에서는 (9), (10)의 경우도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가 실제 발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과 어울리는 하는 점을 보기 위함이다.

위에서 보인 부정 표현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구어 자료에 나타난 부사와 부정 표현과의 어울림 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그 다 지	도 대 체	도 무 지	도 저 히	도 통	딱 히	미 처	별 로	영	일 절	전 혀	절 대 로	차 마	채	통
(1) 안	안	2	5	1	13	△			330	3	1	12	68		2	△
	지 안	7	△	△	△	△			81	△	△	3	13		△	△
(2) 못	못	△	△	△	13	△		2	31	△	△	2	32	1	1	△
	지 못	△	△	△	△	△		△	1	△	△	1	1	6	△	△
(3) 말다	지 말										△		10			
(4) 없다	없다	2	△	△	△	△	2	△	196	△	△	6	3	△		△
	가 없다	2	5	△	5	1	1	△	89	△	△	6	8	2		1
(5) 아니다	아니다								2	2		2	12			
	가 아니 다		△				1		9	△		△	3			
(6) 이다	이다								84							
(7) 모르다	모르다		△	△	△	△		△	6	△	△	11	△			△
	를 모르 다	△	1	1	△	△		△	△	△	△	1				△
(8) 다르다	다르다									△		3				
	가 다르 다								2			△				
(9) 부정문 맥	수사의문		72													
	한자어휘	/	/	/	1	/	/	/	/	/	1	/	5	/	/	/
미확인NU		6	14		2				101			3	15	3		
오류MC		1	2	/	2	/	/	/	25	/	/	1	3	1	/	2

위의 표에서 숫자가 표시된 것은 해당 부사와 호응하는 부정 표현의 출현 횟수를 의미한다. △ 표시는 이론상으로는 호응할 수 있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론상 호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은 대부분 빈도수가 낮은 어휘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자료가 더 추가되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현재 출현한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아래에 음영처리된 부분에서 ‘미확인’은 발화가 끊기거나 생략되어 호응하는 부정 표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일컬으며, ‘오류’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발화가 비문법적인 경우를 일컫는다.

위의 표를 보면 각 어휘별로 출현 양상이나 빈도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위의 표를 통하여 우리는 의미있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각 부사 어휘별로 호응하는 부정 표현과 호응하지 못하는 부정 표현의 목록을 확보할 수 있다. 위의 표에 제시된 부사류가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 표현과 호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어휘마다 다르다. 위의 표에서는 △ 표시 등을 통하여 각 어휘별 분포의 차이를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어휘에 관한 연구나 부정소 관련 연구, 사전 편찬, 국어정보학 분야 등에서 요긴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각 부사 어휘별로 호응하는 부정 표현의 빈도 정보이다. 각 부사류가 실제 발화 상에서 어떤 부정 표현을 더 선호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가령 ‘별로, 전혀, 절대로’ 등 많은 어휘가 ‘안’ 부정 표현과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저히’는 ‘안’ 부정과 ‘못’ 부정이 대등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 부정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도저히’는 ‘못’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빈도순 등을 따져보면 선호하는 부정 표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실제 언어 사용 양상으로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분야 등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이다.

### 3.2. 부정 표현의 단계별 변화 양상

위의 표에 제시된 어휘 항목 중에서 가장 이른 단계에서 나타나며 빈도가 높은 ‘별로’와 ‘절대로’를 통하여 그 단계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호응 관계의 습득이나 발달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1) 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별로’의 경우를 먼저 살펴기로 한다. 유아에서 대학생까지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별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 (1) 가. 난 별로 안 흘렸어. (6세)  
    나. 내가 별로 맞아보진 않았지만-, 인제(이제) 더 세졌어(세졌어). (초등1)
- (2) 가. 별로 못 해. (초등1)  
    나. 근데 그거 어린 애들은 별로 따라가지를 못 하잖아 진도를, (대학생)
- (3) 가. 놀이는 별로 없고, (초등1)  
    나. 그거는-, 많이 타 봐서 별로 재미가 없어. (초등3)
- (4) 가. 안 될 때는 별로 아닌데.<sup>12)</sup> (중등1)  
    나. 별로 그렇게, 막~ 아프다고 느낄 정돈 아니던데? (중등2)
- (5) 할말이 많아 가지구, 지금은 별로야. (초등1)
- (6) 나는 별로 모르겠는데. (중등1)

(1)은 부정의 ‘안’과 호응하는 경우로 가은 단형부정과 호응하는 경우이고 나은 장형부정과 결합하는 예이다. (2)는 ‘못’에 의한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경우로 가은 단형부정, 나은 장형부정 형태와 결합하는 사례이다. (3)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없다’와 호응하는 경우인데, 가은 ‘별로’가 ‘없다’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이고 나은 ‘별로’가 ‘-가 없다’와 같은 구절 형태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4)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아니다’가 쓰인 경우로 가은 ‘별로’가 ‘아니다’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이고, 나은 ‘별로’가 ‘-가 아니다’와 같은 구절 형태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5)는 ‘별로’가 마치 명사처럼 지정사 ‘이다’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이고 (6)은 용언 ‘모르다’와 결합한 경우이다.

각 유형별로 출현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이 문장은 비문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가 아니다’의 구절 형태와 결합하는 경우를 대비시키기 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구분		3세	4세	5세	6세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	총빈도
안	안				2	2	11	12	22	23	24	30	27	39	33	44	15	46	330
	지 안					2	0	2	4	2	9	9	10	10	6	9	9	9	81
못	못					1			4	1	2		7	1	8	3	1		31
	지 못																		1
없다	없다				2	8	6	6	13	12	20	22	15	15	20	21	12	24	196
	가 없다					1	6	8	7	12	7	6	10	5	7	8	12		89
아니다	아니다											1							1
	가											1	1		5	2		1	10
	아니다																		
이다					1	4	6	2	8	9	14	6	12	6	3	4	9		84
모르다							1					1				2		1	5
오류			1			2		3	4	3	4	5				2		4	26
미확인						1	1	3	4	6	9	16	10	11	15	10	4	11	101

전체 빈도로 보면 ‘안’에 의한 부정과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없다’, ‘이다’, ‘못’, ‘아니다’에 의한 부정 표현의 순으로 나타난다. 출현 순서로 보면 전체 빈도 1, 2위인 ‘안’과 ‘없다’에 의한 부정 표현이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절형태와 결합하는 경우가 다소 늦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빈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별로’가 ‘안, 못, 없다’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지 않, -지 못, -가 없다’에 비해 더 일찍 출현하고 전체적인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경우 단형부정과 어울리는 경우가 장형부정과 호응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습득이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없다’의 경우를 통하여 ‘별로 -가 없다’와 같은 원거리 호응보다는 ‘별로 없다’와 같이 인접한 호응 양상이 더 일찍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형 부정의 경우 ‘별로’와 ‘-지 않-’ 사이에 용언이 첨가된다는 점에서 원거리 호응 양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별로’가 수식하는 성분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구성이 떨어져 있는 성분 간의 원거리 호응보다는 습득이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응하는 성분들이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더 습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니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 아니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오히려 높은 빈

도를 보인다. 이는 ‘안, 못’과 같은 부정 표현의 경우에는 그 부정 표현 뒤에 부정하는 행위나 상태 표현들이 나타나고, 따라서 이 때 ‘별로’는 그러한 부정 표현 및 행위/상태를 부정할 수 있지만, ‘아니다’의 경우에는 ‘아니다’ 뒤에 ‘아니다’가 부정하는 사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별로가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구(‘-가’)와 ‘아니다’ 사이에 놓이게 되면 올바른 부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물 및 그것의 부정 표현인 ‘아니다’의 앞에 ‘별로’가 놓여야 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점은 지정사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의 빈도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논의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어휘 중에서 ‘별로’만큼 ‘이다’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지정사 ‘이다’에 부사가 선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별로’만큼 높은 빈도로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마치 관용표현 ‘미역국을 먹다’의 전체 의미인 ‘낙방하다’의 의미가 ‘미역국’에 투사되어 ‘미역국이다’와 같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보인다. ‘별로’는 부정표현과 호응하는 부사류 중에서 다른 부사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관용화의 양상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sup>13)</sup>

한편 ‘별로’가 일반적인 쓰임과는 달리 잘못 사용된 경우들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 (7) ㄱ. ○○(이름)이가 막~ 싫은데, 별로 그런 거 싫은데, (초등1)
- ㄴ. 개를 별로 싫어하잖아, (초등3)
- ㄷ. 롯데월드 같은 데는-, 별로 싫어해. (초등3)
- ㄹ. 음악을 좀 별로 싫어해. (초등4)
- ㅁ. 근데 이제 ○○○(이름) 별로 싫어. (초등4)
- ㅂ. 나도 별로 싫어 해. (초등5)
- ㅅ. 아니 별로 싫어해. (초등5)
- ㅇ. 아, 나도 별로 싫어. (초등5)

13) 현재 사전에는 이런 결합 가능성이 정밀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ㅈ. 난 그런 애 별로 싫어. (초등6)
- ㅊ. 그럼 너 로봇 만드는 거는 별로 할= 하기 싫나? (중등1)
- ㅋ.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이름) 별로 싫어. (중등1)
- ㅌ. 나 별로 보기 싫어. (대학생)
- (8) ㄱ. 너도 친구들이 별로 많아서 안 되겠다. (5세)
- ㄴ. 개랑 사이가 별로 이케 나빠져가서, (초등1)
- ㄷ. 근데 별로 무서운 게 썰(제일) 많아. (초등3)
- ㄹ. 너 키 별로 비슷하다며? (초등4)
- ㅁ. 아 별로 아프다 아하~. (초등4)
- ㅂ. 별로 잘 던지는 것도 살살 던지는 데도 못 잡아, 애들이. (초등6)
- ㅅ. 우리는 별로 그렇게 친하= 친하긴 친하는데(초등6)
- ㅇ. 갑자기 딱~ 이런- 느낌이 나면, 별로 그럴 것 같애(같아). (초등6)
- ㅈ. 니네, 별로 잘 하게 생겼던데. (중등1)
- ㅊ. 다른 건 그냥 별로, 별로 스토리가 뻘해. (중등1)
- ㅋ. 인제 별로 장난 아니야 (중등1)
- ㅌ. 개랑 나랑은 별로 말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말을 거의 안 해. (고등1)
- ㅍ. 그냥 나는 별로 한 살 차인데. (대학생)
- ㅎ. 별로 좋은 니 말투로 해 뭘 매끄럽게 하는 거란다-. (대학생)

(7)은 ‘별로’가 형용사 ‘싫다’와 잘못 결합한 경우이다.<sup>14)</sup> (8)의 경우는 ‘별로’가 사용된 문장에 부정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오류를 빚는 경우이다. (8)의 경우는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데, 여기에는 단순한 구어상의 순간적인 실수인 경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위의 예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7)의 경우로서 ‘싫다’와 결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구어상

14) 한 심사자가 기존의 언어 지식으로 보면 비문법적인 표현들이 실제 언어에서의 변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마도 ‘별로 싫다’와 같은 표현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듯 하다. 실제로 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별로 싫다’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는 이도 있었다. 사실 ‘전혀’와 같은 어휘가 개화기 무렵만 해도 부정극어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별로 싫다’와 같은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의 실수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오류가 중학교 1학년 이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런 출현 양상에 비추어보면 중학교 1학년 이전 시기까지는 ‘별로’가 ‘싫다’와 호응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시기에 이러한 잘못된 규칙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절대(로)

유아에서 대학생까지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절대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 (1) ㄱ. 내 심부름은 절대 안 해. (초등1)  
    ㄴ. 난 너에 대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초등5)
- (2) ㄱ. 그래서 난 이렇게 묶이고, 이걸 절대 썰리도 못, 못 풀른대(푼대). (초등1)  
    ㄴ. 절대 신발을 신으지를(신지를) 못해. (초등5)
- (3) 그 대신 애들에(애들한테) 절대 놔두지 마십시오. (초등1)
- (4) ㄱ. 영어 쓰는 애 절대 없어. (중등2)  
    ㄴ. 절대 싸움이 없도록 해야지. (초등5)
- (5) ㄱ. 선물 받고 싶은 것은 어--~ 햄스터, 강= 아니, 햄스터 절대 아니야. (초등1)  
    ㄴ. 절대 좋은 데가 아니야 절대 좋은 데가 아니야. (대학생)
- (6) 대학은 절대 뭐 모르는 거다. (고등3)
- (7) 야! 노래방 절대 사절이야. (초등6)

(1)은 부정의 ‘안’과 호응하는 경우로 ㄱ은 단형부정과 호응하는 경우이고 ㄴ은 장형부정과 결합하는 예이다. (2)는 ‘못’에 의한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경우로 ㄱ은 단형부정, ㄴ은 장형부정 형태와 결합하는 사례이다. (3)은 ‘말다’ 부정과 호응하는 경우이다. (3)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아니다’가 쓰인 경우로 ㄱ은 ‘절대(로)’가 ‘아니다’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이고, ㄴ은 ‘-가 아니다’와 같은 구절 형태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4)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없다’와 호응하는 경우인데, ㄱ은 ‘절대(로)’가 ‘없다’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이고 ㄴ은 ‘별로’가 ‘-가 없다’와 같은 구절 형태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6)은 ‘모르다’와 결합한 경우이다. (7)은 일종의 관용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절하다’과 같은 부정 문맥과 결합한 경우이다.<sup>15)</sup>

각 유형별로 출현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분		3세	4세	5세	6세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	총빈도
‘안’ 부정	안			1		4	5	2	3	4	8	3	6	6	5	2	8	11	68
	지 안									3	1		3		2	2	1	1	13
‘못’ 부정	못				1		4			7	3	3	5	1	1		4	3	32
	지 못									1									1
‘말다’ 부정	지 말				1			1	1	2	1	3					1		10
	없다											1	1		1				3
없다	가 없다								1			3	1	2		1			8
	다																		
아니다	아니다				1					1	1		2	1	2			4	12
	가 아니다																	3	3
모르다																	1		1
부정문맥							1				1		1		1				5
오류						1				1	1						1		3
미확인				2	4	2		1					2	1	1		1	1	15

15) 실제 발화에서 ‘절대’가 부정 문맥과 호응하는 예를 더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ㄱ. 여자 절= 구독 절대 불가. (초등3)  
 ㄴ. 절대 비밀이야 이걸. (고등2)

한편, ‘절대’가 아래와 같은 발화에서도 출현을 한다.

- (2) 초딩(초등학생) 반사 엄마 반사 무지개 반사 절대 반사 줄. (중등2)

위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로 취급되는 경우이다. ‘절대’가 자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조사와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명사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앞의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빈도로 보면 ‘안’에 의한 부정과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못’ 부정, ‘아니다’ ‘없다’, ‘말다’, ‘모르다’에 의한 부정 표현의 순으로 나타난다. 출현 순서로 보면 전체 빈도가 가장 높은 ‘안’이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절형태와 결합하는 경우가 다소 늦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빈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절대(로)’가 ‘안, 못’과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지 않, -지 못, -가 없다’에 비해 더 일찍 출현하고 전체적인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없다’의 경우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절대(로)’가 일반적인 쓰임과는 다른 경우들도 발견된다.

- (1) 가. 니가 절대 후보에서 올라 아니면은.... (초등2)
- 나. 인제 절대 뭐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해했잖아. (초등6)
- 다. 안 하나까 가르켜 줄= 그건 절대 끊었으니까. (중등1)
- (2) 근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스타일이 싫다는 거야-. (고등3)

(1)은 ‘절대(로)’가 부정 표현이 아닌 긍정 표현들과 어울리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꼭 비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쓰임새와는 차이가 있다. (2)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싫다’와 결합한 경우인데, 다소 어색한 결합으로 여겨진다. ‘싫다’는 ‘나는 개가 영 싫어’와 같이 쓰여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와 호응할 수 있는 용언은 아니다.

####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인의 호응 관계 습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어휘와 문법 형태의 호응 관계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를 대상으로 그 습득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논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출현 시기와 사용 빈도를 살폈다. 초등학생 이전의 유치원 아동의 발화에서는 ‘별로, 절대로’가 나타났으며, 이 두 형태는 전체적인 사용 빈도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현 시기별로 출현 어휘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이전 단계: 별로, 절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 도대체, 전혀, 영, 통, 미처, 도통, 도저히, 체, 일절,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 그다지

중학생 단계: 딱히, 그리, 도무지

고등학생 단계: 차마

(2) 부정 표현의 호응 양상을 살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구어 자료에 나타난 부사와 부정 표현과의 어울림 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K C I

구분		그 다 지	도 대 체	도 무 지	도 저 히	도 똥	딱 히	미 쳐	별 로	영	일 결	전 혀	절 대 로	차 마	채	통
(1)안	안	2	5	1	13	△			330	3	1	12	68		2	△
	지 안	7	△	△	△	△			81	△	△	3	13		△	△
(2)못	못	△	△	△	13	△		2	31	△	△	2	32	1	1	△
	지 못	△	△	△	△	△		△	1	△	△	1	1	6	△	△
(3)말다	지 말										△		10			
(4)없다	없다	2	△	△	△	△	2	△	196	△	△	6	3	△		△
	가 없다	2	5	△	5	1	1	△	89	△	△	6	8	2		1
(5)아니다	아니다								2	2		2	12			
	가 아니 다		△				1		9	△		△	3			
(6)이다	이다								84							
(7)모르다	모르다		△	△	△	△		△	6	△	△	11	△			△
	를 모르 다	△	1	1	△	△		△	△	△	△	1				△
(8)다르다	다르다									△		3				
	가 다르 다								2			△				
(9)부정문 백	수사의문		72													
	한자어휘	/	/	/	1	/	/	/	/	/	1	/	5	/	/	/
미확인NU		6	14		2				101			3	15	3		
오류MC		1	2	/	2	/	/	/	25	/	/	1	3	1	/	2

※ 숫자- 부정 표현의 출현 횟수 / △ 표시 - 호응이 가능하지만 미출현한 경우

(3) 빈도수 1, 2위인 ‘별로’와 ‘절대(로)’가 나타난 발화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어울림 양상을 분석하였다. ‘별로’, ‘절대(로)’와 호응하여 나타나는 부정 표현의 형태와 빈도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그 변화 양상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별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경우 이외에 지정사 ‘-이다’와 빈번한 결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로야/별로다). 한편 ‘별로’는 잘못 사용된 경우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형용사 ‘싫다’와 결합되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이런 오류 표현은 중학교 1학년 시기 이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학교 1학년 이후 시기에는 습득이 완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절대로’의 경우는 ‘별로’에 비해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류도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오류 양상을 보면 긍정 표현과 어울려 어색한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상으로 모든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부사와 부정 표현의 호응 관계는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의 결합과 같은 어휘, 의미적 호응 관계보다 좀더 늦게 습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유치원 아동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출현 및 사용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실제 구어 자료에 바탕을 둔 논의여서 출현하지 않은 어휘들에 관한 논의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논의의 주된 목표로 삼은 어휘의 출현 양상을 통해본 습득 순서나 단계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나 이유에 관한 부분은 좀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호응 관계에 관한 습득 원리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만이 아니라 ‘만약 -면, 아무리 -어도’와 같은 문법 형태와 호응하는 어휘들로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어휘 또는 의미적인 호응 관계라 할 수 있는 연어 구성에 관한 습득 양상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의 문제점이나 남겨진 과제들에 관해서는 추후를 기약해 본다.

## 참고문헌

-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수식 연구,” 국어 연구(서울대) 37.  
김경훈(1996), “현대 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영희(1998), “부정 극성어의 허가 양상,” 한글 240, 241 합병호.  
김진혜(2000), 언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호.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박선자(1996),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 의미론, 서울: 집문당.  
서상규(1984),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범위,” 한글 186.  
서정수(1996), 수정중보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 출판부.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서울: 박이정.

- 시정곤(1997ㄱ),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호.  
시정곤(1997ㄴ), “국어의 부정 극어 허가 조건,” 언어 22-3.  
시정곤(1998), “국어의 부정어와 어휘분해,” 한국어학(한국어학회) 7집.  
이인섭(1986),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정민(1997), “언어 습득과 화용 규칙,” 새국어생활 7권 1호.  
이재영·엄홍준(2004), “부정극어와 부정어,” 언어 29권 1호.  
이환목(1977), “국어의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어학연구 13-2.  
이승복(1997), “언어습득의 책략과 발달 과정,” 새국어생활 7권 1호.  
임유중(1999), 한국어 부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임홍빈(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조명환(1982), 한국 아동의 언어 획득 연구: 책략 모형, 서울: 서울대 출판부.  
조숙환(1997), “언어 습득론,” 새국어생활 7권 1호.  
채상진(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국어문학회) 38권.  
Chung, Dae-ho(1997), NPI Types Based on the Trigger Strength,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Seoul, Korea.  
Lee, C.(1996), Negative Polarity Items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Sciences* 18.  
Nam, S.(1994), Another Type of Negative Polarity Item, in M. Kanazawa and C. Pinon eds. *Dynamics, Polarity, and Quantification*,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임유중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 17번지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33-791  
전화번호: 02-2290-1505  
전자우편: hyyj1004@kornet.net

이필영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국어국문학과  
425-791  
전화 번호: 031-400-5317  
전자 우편: lpy6195@hanyang.ac.kr